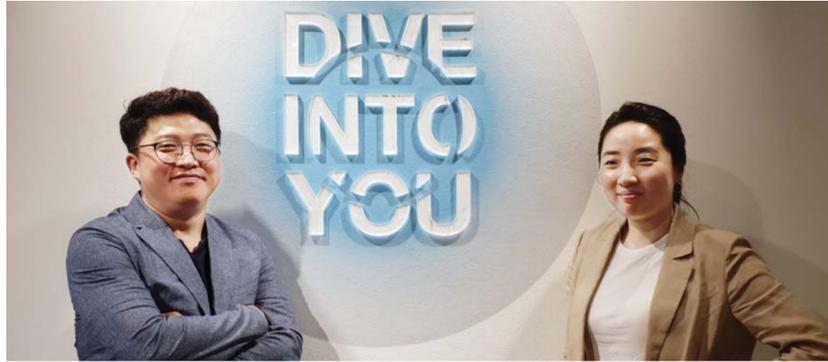


“역동적인 수영대회 알릴 작품 고려 공간 구성”

수영대회 기념 청년작가 13인전
김대욱 감독·서지안 기획자

작품 돋보이게 색깔·고유 톤 배려
지역 작가 격려·새 작가 발굴 도움
참여작가 대표작 에디션 전시·판매
28일까지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을 기획한 김대욱(왼쪽), 서지안 대표.

오는 28일까지 'DIVE INTO YOU'를 주제로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은 세계로 발신하는 광주 예술가들의 목소리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주관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청년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 40여점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와사비' (40) 김대욱 대표와 서지안 (39) 아트컴퍼니 모이모 대표가 총괄 감독과 기획자로 참여해 진행했다.

“전시를 기획하면서 주목할 키워드가 ‘열정’과 ‘도전’이었어요. 수영선수권대회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젊은 선수들의 끝없는 도전을 떠올렸죠.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꾸준히 자신의 작업 세계를 만들어 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열정과 도전 의식을 갖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요.”(서지안)

참여작가 노여운·박성환·박인선·송지윤·선영현·설박·신호운·양나희·양세미·임현채·윤준영·이인성·최요안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한국화, 서양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전시 준비가 힘들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작품을 어떻게 전시장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해요. 역동적인 수영대회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포인트로 두고, 작가들의 작품이 묻히지 않고 모두 돋보일 수 있도록 색깔과 작품 고유의 톤 등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했어요.”(김대욱)

서 대표는 이번 전시가 광주 작가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작가 중 가장 어린 양세미 작가의 경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이 알려졌고 현재 대인예술시장 입주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 행보가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식에 참석하신 시장님께 3년만에 광주를 이끌어갈 대표 화가들이 될 거라고 소개했어요.(웃음). 이번 참여 작가 뿐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또 다른 작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 말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웃음). 시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전시를 많이 기획해주면 좋겠습니다.”(김대욱)

두 사람 모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터라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많다.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2007년 전시컨설팅업체 ‘와사비’를 설립한 김대표는 전시 기획, 작품 운송, 설치, 도록 제작, 홍보 등 토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조선대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지난해 예술장터를 열기도 한 그녀는 초창기에는 실험성 강한 대안적인 전시 등도 기획했지만 왠지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 작품 판매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현재 대인예술시장에서 아트숍 ‘수작’을 운영하고 있고 기도 한 서 대표는 이번 전시 기간 중 참여작가들의 대표

작 에디션을 전시하고 판매도 한다. 대인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전시회를 홍보하고 작가들도 소개하기 위해서다.

김대표는 다소 목직하던 이번 전시와 함께 전혀 성격이 다른 전시도 진행했다. 직거래 장터인 ‘예술산책:길에서 만난 예술’전을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었고, 2주 동안 50명 200점의 작품을 전시해 4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두 가지 행사를 치르며 고생도 많았지만 재미있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상처림이 많이 차려져야합니다. 수영대회 전시처럼 대작 위주의 정중하고 의미있는 전시도 필요하고, 장터처럼 활기차고 재미있게 전시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죠. 앞으로도 좋은 기획자들과 연계해 의미있는 전시를 꾸리고 싶어요. 두 행사를 기획하며 작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광주미술 작가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힘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김대욱)

두 사람은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나오고, 건전한 광주미술시장을 형성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 영국 에딘버러 축제 무대 선다

임주신·최성웅·임형덕
음악·영상 감독 초대받았다



최성웅, 임주신, 임형덕(왼쪽부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운영하는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19년 입주작가들이 세계 최고 축제 중 하나인 영국 에딘버러 축제에 음악과 영상 감독으로 초대받았다.

임주신(음악), 최성웅(영상), 임형덕(영상) 작가가 주

인공으로 이들은 국내 극단 ‘브러시 씨어터’의 아동극 ‘두들팝’ 음악감독과 영상 감독으로 에딘버러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공연은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에딘버러 ‘어셈블리 극장 제1스튜디오’에서 매일 한차례씩 열린다. ‘두들팝’은 배우들이 라이브로 연주하고 노래할 뿐 아니라 직접 드로잉까지 하는 작품으로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도입, 드로잉 작품이 움직이는 새로운 형식의 아동극으로 화제를 모았다.

세 사람은 극단 ‘브러시 씨어터’의 가족음악극 ‘작은 악사(Little Musician)’에도 음악·영상 감독으로 참여, 오는 26일 영국 웨일즈에서 개최되는 ‘세계 기축극 페스티벌’에서도 세 차례 공연을 갖는다.

이들은 또 오는 9월 중국 5대 뮤지컬

극장 중 하나인 ‘상하이 문화극장’에서 공연되는 ‘작은 악사’ 공연과 10월 멕시코 공연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두들팝’ 무대에도 참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임주신 감독은 “예술인에게 꿈의 페스티벌이자, 무대인 에딘버러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대학생 때 관객 입장으로 갔던 페스티벌을 이제는 음악 감독으로 초대받아 가게 돼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좋은 공연을 많이 보고, 몸으로 느끼고 돌아와 더 좋은 음악과 영상으로 광주시민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에딘버러 축제는 각국의 예술인들이 연극, 음악, 발레 등을 공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다.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예술야시장’ 금요일 밤에도 문 연다

수영대회 기간 확장 개최
쿨링체험·스트리트 드림공연 등

다채로운 예술과 함께하는 야시장 ‘대인예술야시장’이 수영대회 기간 동안 금요일 밤에도 문을 연다.

광주대인예술시장이 7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11시 특별야시장을 개최한다. 행사 중에는 다채로운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열려 흥을 돋운다. 야시장 체험존에는 물과 얼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스트레스·더위를 푸는 ‘쿨링(cooling) 체험’이 마련된다. 상설문화공연 프로그램 ‘에인절전’은

음악·퍼포먼스 공연들로 채워진다.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나포’의 타악 퍼레이드(20일)가 열린다. JTBC 방송 프로그램 ‘슈퍼밴드’에 출연한 드러머 이시영의 스트리트 드림 공연(26일)도 열려 후라이팬·무경·패인트통 등 일상 도구를 드럼으로 활용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특별 프로젝트 ‘꿈꾸는 고래를 초대합니다’도 진행된다.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묘수’ 입주작가 정재업·양세미·전준모·정혜진·윤석린이 참여한다. 또 이송준 조각가의 ‘THE ANIMALS’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지난달 열린 ‘대인예술야시장’에서 진행된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 모습.

또 다문화공간 ‘드리머스’는 19일, 26일, 8월 9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특별 콘서트 ‘드리머스가 들려주는 광주 이야기’를 개최하며, ‘판타스틱미스테이크 밴드’, ‘아일랜드 밴드’, ‘밴드조’ 등이 출

연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또 월드마켓존에서는 음식, 상품, 외국인 커뮤니티 부스 등을 운영해 세계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2-233-142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여름밤 하늘타리 복 들어가요

두드리, 23일 광주문화예회관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의 전통문화 예술 공연 ‘한 여름밤 하늘타리 복 들어가요’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두드리가 지난달 ‘미주한 국어재단’과 ‘가나다라한국어학교’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선보였던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광주에 소개하는 자리다.

이날은 ‘장구놀이’, ‘강강술래’, ‘오고무’, 국악가요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버나돌리기’, ‘줄공 돌리기’ 등 남사당놀이

이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평년프로젝트’만 세만세만(萬)만(滿)계’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시민 기부금 800만원과 지원금 800만원 총 1600여만원으로 진행된 다.

두드리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복 들어가요’ 프로젝트 일환인 ‘모듬복’과 ‘전통무용’, ‘탈놀이’ 공연 및 교육, 찾아가는 지역사회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10-8622-158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